

4대 암 치료 역량 인정...아시아 대표 의술 펼친다

심평원 잇단 우수인증 화순전남대병원

과거 암은 불치병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검진 등 예방노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2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분별 암치료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대장암을 시작으로 유방암, 폐암, 위암에 이르기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첫 평가를 실시한 위암에 이어 폐암·유방암 평가결과가 이미 발표됐고, 조만간 대장암 평가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4대암 평가에 따르면 호남권에선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김형준)의 치료역량이 단연 돋보인다. 해당부문 암치료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해오고 있다. 미국의 유명 인터넷 미디어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암 전문병원"으로 추천할 정도로, 공신력이 있다.

'암예방의 날(3월21일)'을 맞아 서울의 '빅4' 병원과 함께 암분야 '국내 톱5'로 떠오른 화순전남대병원의 4대 암 치료 역량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화순전남대병원 김형준 원장과 보직자들은 정기적으로 직원 중증과 환자 중심의 진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 '요발병률 1위' 대장암

환자 생존율, 수도권보다 높아



대장암은 최근 서구적인 식습관과 생활방식으로 아시아권에서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대장암 치료의 우수성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심평원의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100점 만점을 획득, 우수성을 입증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평균은 99.25점이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도 수도권 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정 전남지역암센터가 1999년~2011년 최근 13년간 광주·전남지역 대장암 환자 치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순전남대병원의 대장암 수술환자(2008년) 5년 생존율은 83.5%로 나타났다. 수도권 병원은 이보다 8.1%포인트 낮은 75.4%였다.

화순전남대병원 대장암 클리닉(부장 김형묵)은 대장항문외과,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유기적인 협진으로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장항문외과에서는 매년 평균 600건 이상의 대장암 수술을 하고 있다. 80% 이상의 환자들에게 최첨단 복강경수술을 하고 있으며 다빈치 로봇수술 등을 도입, 기존 개복수술의 단점인 수술후 통증과 더딘 회복을 극복해냈다. 초기 대장암엔 내시경절제술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요법과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등 맞춤형 치료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장암 진료팀은 대장항문외과(김영진·김정록·김정현·이수영), 소화기내과(주영은·이완식·조성범), 종양내과(정인주·조상희·심현정·배우근), 영상의학과(정용원·허숙희), 병리과(최찬·이재혁·이경화), 핵의학과(범희승·민정준), 방사선종양학과(남택근)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여성암 1위' 유방암

최신 유방재건술 선택...학계 주목



국내 여성암 1위는 선진국형 질병으로 불리는 유방암이다. 식습관의 서구화와 비만, 저출산 등이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감안하면 앞으로 유방암 발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순전남대병원의 유방암 치료는 올해 심평원 적정성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점수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종합점수는 99.48점(전체평균 96.56점, 상급종합병원 평균 99.45점)으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평균점수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유방·내분비암 클리닉(부장 박민호)에는 한국유방암학회장을 역임한 윤정환 교수를 비롯, 명성 높은 의료진들이 포진하고 있다. 내분비외과에서는 최신 수술기법으로 매년 600건 이상의 유방암 수술을 하고 있다.

윤 교수는 국내 최초로 유방외과의 복직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발표하는 등 장기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방암 환자의 진단·수술·항암치료까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 연수를 다녀온 박민호 교수는 형광물질을 이용한 유방 종양의 맞춤형 표적·영상화 연구에 관해 '네이처 메디슨'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

박민호 교수는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 등 수술결과가 미국이나 유럽의 생존율과 비교해도 자신있을 만큼 국내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유방암 치료의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과정에 해당되는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재활의학과 등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진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 '암 사망률 1위' 폐암

탄탄한 협진 체계로 신속 진료



전조 없이 다가오는 '조용한 살인자' 폐암, 조기발견이 어렵고 수술조차 불가능한 시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80% 이상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17번째 여러 종류의 암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폐암 치료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종합점수는 99.73점(전체평균 95.11점, 상급종합병원 평균 98.88점)으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평균점수보다 뛰어난 성적을 받았다. 임원비 역시 전국 상급종합병원들 평균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조직검사, 전신촬영, 체력검사 등 다른 암에 비해 필요한 검사들이 많은 편이어서 진단과정이 오래 걸리기 쉽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 편의와 신속한 진료를 위해 폐종양이 의심될 경우, 진단 병상에 단기 입원토록 해 MRI·기관지내시경·조직검사·PET/CT검사후 협진회의를 통해 치료방향까지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폐·식도종양클리닉(부장 안성자)은 환자맞춤형 다학제 진료로 이름 높다. 호흡기내과(김영철·오인재·박철규·임정환), 흉부외과(나국주·송상훈·윤주식·김석), 방사선종양학과(안성자·윤미선·정재욱), 신경외과(김인영), 영상의학과(신현주·김수현·김오연), 병리과(최유덕) 핵의학과(범희승·권성영·강세형) 의료진이 모여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다.

2014년 8월부터는 다학제 진료에 환자와 보호자를 참여시켜 의료계와 지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폐암환자를 위한 폐암이야기' 대민강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번갈아 참석, 폐암의 증상과 진단, 수술·항암제·방사선 치료법,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남성암 1위' 위암

합병증 사망률 0%...해외환자 줄이어



한국남성 발병률 1위인 위암. 한국인이 왜 위암에 잘 걸리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유의 식습관과 관련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올해 심평원이 처음 실시한 위암치료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특히 위암 수술은 '실제사망률 0%'로, 완벽한 의술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전통적인 개복수술은 물론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등 환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미세침습수술기법을 적극 도입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술 실제사망률은 환자가 입원해 수술 후 퇴원에 이르기까지 약 1개월 동안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화순전남대병원 위암 클리닉은 국내는 물론 미국동포들이 치료받러 올 정도로 명성이 높다. 그 바탕에는 실력있는 의료진들이 지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위암 예방을 비롯해 박영규·정오·정미란 교수와 전임의·전공의 그리고 다수의 전문간호사들이 유기적인 팀을 이뤄 최상의 진료·수술역량을 펼치고 있다.

박영규 교수는 지난 2012년 미국복강경외과학회에서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근치적 복강경위암수술을 하는 모습이 상영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명성 높다.

위암 예방을 위한 배짱을 통한 최소절개로 위 속의 종양을 제거하고도 흉터가 남지 않는 수술법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정오 교수도 저력을 인정받고 있다. 위암학회 국제학술회에서 '우수연구자상'을 최근 2년 연속 수상했고, 일본 위암학회에서 두차례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22982	1	동구 문림길23, 101동 9층 1001호 84.92㎡	아파트	176,000,000	
2015타경 62905	1	광산구 월계동759-1첨단지구유미아파트104동2층205호78.54㎡ [소재지본2/11전부]	아파트	29,100,000	공유자주전매수권 행사제한
2015타경 28983	1	동구 계림동 523-20 52.9㎡	대	28,539,100	일괄매각, 김복식 단독주택
2015타경 14677	1	영광군 영산면 마월리 508 350㎡	대	22,466,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5타경 20511	1	북구 중흥동 160 72㎡	대	138,465,8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5타경 20641	1	영광군 군남면 표현리 325-12 4호 39.6㎡	주택, 점포	7,249,600	건물만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5타경 22210	1	북구 동광동 533-19 155㎡	대	237,650,2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5타경 22371	1	장성군 전원면 용산리 802-6 331㎡	대	107,106,8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수목포함
2015타경 60090	2	장성군 장성읍 아은리 303-1 204㎡	대	36,441,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장성군 장성읍 아은리길 6-4 59.07㎡ 부속 건물 부속실23.7㎡ [실측31.5㎡] 제시외 가축 등 89.7㎡	대	36,441,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장성군 장성읍 아은리 308 466㎡	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19740	1	영광군 군서면 안곡리 496 2170㎡ [분묘소 전 제, 수목제외하구매]	전	16,2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5타경 20863	1	나주시 단치면 가솔리 183-5 771㎡	대	16,275,000	일괄매각, 지분매각, 이거남지분1/3전부
2015타경 22371	1	광산구 대산동 803-3 2470㎡	대	76,5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5타경 60090	1	장성군 장성읍 아은리 300-10 524㎡	대	20,235,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동소 300-11 825㎡	대	20,235,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동소 산42-3 162㎡	임야	1,794,600	현황상토지사용
		장성군 장성읍 부흥리 산26 4661㎡	임야	5,593,200	5,593,200
		동소 산33-1 9917㎡	임야	19,834,000	분묘소제
2015타경 62126	1	남구 진월동 산193-18 30㎡	임야	11,370,000	현황대로
				11,370,000	
[자동차, 중기]					
2015타경 22012	1	사용번호:대전 중구 성산로 9 203호 [인 자동차] 영동 등록번호: 16모3811 차량·S M5 연식:2013	자동차	15,500,000	보관장소:광산구 안동동156-2상산 주차장
[기타]					
2015타경 19740	2	영광군 군서면 마월리 294 440㎡	대	31,821,58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목축4 농지취득자격증명, 수목제외
		동소 299 274㎡	대	31,821,580	
		영광군 군서면 군서로2길 24-6 75.13㎡ 부속건물 138.62㎡ 2층131.87㎡ 3층73.94㎡ 제시외 주택 등 129.9㎡	대	752,958,7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5타경 19900	1	광산구 운남동 775-7 234.2㎡	대	752,958,7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5타경 63570	1	나주시 대호동 350 740㎡ [농지취득자격증명]	대	90,585,000	일괄매각, 수목및 제시외 건물제외
		동소 350-1 813㎡	대	90,585,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위한 최고가매수신청이 매각결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지시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경우, 즉시 그 중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과가 산정이나 공고, 대금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공서는 출제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서서 제정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준 매각결과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3. 2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대